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 계기 마련한 국제신문 레바는 항구폭발 사고 타산지석 삼은 부산일보·부산MBC

국제신문은 8월 4일부터 6일, 3일에 걸쳐 기획기사 [산재는 기업범죄대를 연재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여러 면면 중 국제신문이 주목한 건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건들의 판결문 81건을 분석해 산재사건에서 피고인 양형 근거가 되는 단어들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 ‘전과 없음’, ‘반성’, ‘합의’... 국제신문은 판결문 중 ‘이유’에 해당하는 문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기업범죄 임에도 이보다 앞서 ‘피해자 과실’, ‘합의’ 등이 양형 사유로 인정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적합니다.

과연, 정말, 피해자의 잘못일까?

국제신문은 2017년 10월 8일, 추석연휴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하청노동자 사망사건을 다시 조명합니다. 안전난간은 양방향 중 한쪽에만 있었고 안전대 자체는 지급받지도 못했으며 추석 연휴라는 이유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소장은 출근을 하지 않은 날 두 명의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산재 사고 역시 ‘자백’, ‘반성’, ‘합의’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선 기업인들은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재범률 97%. 부산에서만 일주일에 1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바로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다.”

국제신문의 기획 [산재는 기업범죄대]는 부산지역 판결문 분석을 통해 양형 근거를 드러냄으로써 산재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한 좋은 보도입니다.

해당 기사

<산재는 기업범죄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국제신문, 8/4, 3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4.22003000855>

<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국제신문, 8/5, 3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5.33001001340>

<산재는 기업범죄다 <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국제신문, 8/6, 5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6.22005001742>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를 계기로, 부산항 위험물질 관리 현황과 대책 짚어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산암모늄' 약 2160t이 부산항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양은 베이루트 항에 보관된 질산암모늄 2750t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부산항에는 질산암모늄 이외에 다른 위험 물질 1200여t도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기관에서 즉시 대응 안전 사고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5일 부산시해양경우안전처(이하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항 8개 컨테이너 운송사가 9개 부두에서 레바논 폭발 사고와 원인 물질로 추정되는 질산암모늄 1087TEU를 보관하고 있다. 1TEU는 길이 20피트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2160여t 다른 위험 물질 1220t도 보관 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사 상주 부산해수청 "폭발 위험성 없어"

내는 단위이다. 부산해수청 조사 결과, 질산암모늄이 보관 중인 1TEU 무게는 20t 이상으로, 부산항에는 약 2160t의 질산암모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을 비롯한 질산암모늄은 화학 등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유해 물질이다. 질산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맞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번 레바논 폭발 참사에서 베이루

트 항구 창고에 약 2750t의 질산암모늄이 6년간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 지진관측소는 이날 폭발이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다고 추정했다. 앞서 2004년 4월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 당시에도 질산암모늄을 실은 화물 열차에 불꽃이 옮겨붙으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에는 질산암모늄 이외에 염소산 나트륨(487TEU), 질산칼륨(137TEU) 등 또 다른 위험물질 총 1220(61TEU)도 보관되고 있다. 이들 위험물질은 수출이나 환적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는 수입됐다. 현재 이들 위험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위험물 옥외저장소'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인 '질산암모늄' 2160여t이 부산항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부산일보DB

관리되고 있다. 위험 물질은 화재와 폭발 위험성을 고려해 주변에 선박과 건물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되고 있다. 옥외저장소 주변으로는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다. 이곳 인근에는 방화사(모래) 등 화재를 대비한 비상

물품이 구비돼 있다. 또 관리법에 따라 옥외저장소 인근에 관리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사가 상주하며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방 속과도 긴밀히 협조 관계를 구

축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 사고 이후 7가지 폭발사고 위험 물질과 관련한 부산항 보관 용량 등을 조사해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부산항에 보관 중인 폭발 사고 위험 물질 모두 관련 절차와 국제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보관 중 폭발 위험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 시간) 대규모 폭발 참사가 발생해 70여 명이 숨지고 3700명이 다쳤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으며, 이 폭발로 항구가 크게 훼손됐고 인근 건물도 파괴됐다.

김성현·박진희 기자 kwak@busan.com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산암모늄'이 부산항에도 있다는 사실을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주목했습니다. 부산일보는 8월 6일 8면에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 기사를 부산MBC는 8월 6일 첫 순서로 <부산항 위험물 관리, '컨트롤타워' 없다>를 리포팅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들은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부산항의 위험물 관리 실태를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큰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부산항 관리체계를 돌아본 부산일보

와 부산MBC. 지역 언론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됩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 (8/6)

해당 기사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부산일보, 8/6,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0519173176342>

<부산항 질산암모늄 관리 '컨트롤타워'가 없다>(부산일보, 8/11, 11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1019173658007>

<부산항 위험물 관리, '컨트롤 타워' 없다>(부산MBC, 8/6)

<https://busanmbc.co.kr/article/tP5o7MKhzIFe>